

opusdei.org

2월 1일부터, 성 요셉의 고통과 기쁨

성 요셉께서 겪으신 한 가지 고통(시련)을 묵상하면서, 동시에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분께 주신 기쁨(은총)도 함께 묵상합니다.

2026-1-31

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, 성 요셉의 고통과 기쁨

성 요셉의 ‘일곱 주일’ 신심은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 온 간단하고도 깊은 신심으로, 연속된 일곱 번의 주일을 정하여 성 요셉을 공경하고, 특히 성 요셉 대축일(3월 19일)을 향해 마음을 준비하거나 어떤 필요를 두고 전구를 청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.

매 주일마다 성 요셉께서 겪으신 한 가지 고통(시련)을 묵상하면서, 동시에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분께 주신 기쁨(은총)도 함께 묵상합니다. 이렇게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. 곧 십자가와 은총을 함께, 시험과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.

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봉헌합니다.

- 잠시 기도와 묵상을 하고,
- 복음 말씀을 읽으며,

-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를 바칩니다
(많은 이들이 주님의 기도, 성모송, 영
광송을 덧붙입니다).

이 신심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. 왜
냐하면 성 요셉처럼 침묵 안에서, 순
명과 정결, 성실한 노동, 그리고 하느
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살
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
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2weol-1ilbuteo-seong-yosebyi-gotonggwa-gibbleum/> (2026-1-31)